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확대 운영한다

내달부터 시민총회 등록 접수

시민제안 온라인·현장 투표

마을공동체 등 주민자치 강화

광주시가 올해 첫 시도한 시민총회, 시민정책마켓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정을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포럼 개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먼저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정책화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2018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광주시민총회, 시민정책마켓, 직접 민주주의 시민 포럼 세부 운영안을 마련한다.

2018 광주시민총회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민회 등록을 받고, 시민제안 발굴을 위한 민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제안은 주제와 분야 제한 없이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의 문제, 제도 개선, 새로운 정책 등을 제시하도록 진행되고, 자치구별 1명, 분야별 2~3명 등의 퍼실리테이터를 배정해 민회활동을 지원한다.

수립된 민회 제안을 분야별로 모아 공유·토론하고 이어 교수·정치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회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제안을 숙의, 완성한다.

시는 완성된 시민제안의 경우 시 홈페이지

지에 게시해 온라인 찬반투표를 실시, 1차로 걸러낸 뒤 광주시민총회 무대에서 10여 건의 제안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를 실시한다.

확정된 시민제안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연계된다. 시는 실행력이 높아지도록 온라인 투표와 광장의 광주시민총회 찬반투표 결과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전국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시민정책마켓’도 내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우수정책 모집분야를 기존의 복지, 환경, 교육, 자치, 청년·여성, 경제, 일자리, 문화분야 외에 의료·보건, 사회적경제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의 우수 정책사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18년 시민정책마켓에 소개된 우수 정책은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 선정 우수 정책’ 상패를 수여해 정책마켓의 위상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직접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시민의 직접 참여요구와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대 정신을 토론하는 공론화 장을 열어, 시민과 지역 정치인,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한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이 밖에도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사업’도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유럽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가다

광주시, 연수 보고서 발간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7월11일부터 9일간 네덜란드 네이메헌(Nijmegen)과 암스테르담(Amsterdam), 독일의 에센(Essen)과 도르트문트(Dortmund)를 찾아 연수한 내용을 엮은 ‘2017 해외 지속가능발전 연수 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16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유럽 환경수도, 기후변화, 물순환, 도시숲,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문화역사, 국제연대 및 협력 등 7가지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이 7가지 키워드는 이번 연수 참여자들의 전문 영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도시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우수 정책 사례와 그 추진과정을 살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병완 상임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greengi.or.kr)에서 내려 받거나 사무총국(062-613-4175)으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95년 UN의 권고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행정, 시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든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오늘 설명회

광주시는 11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규정에 의거해 광주광역시에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는 2017년 공익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방향과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2018년도 공익활동 사업유형 설문조사 및 지원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어 우수 시민단체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도 진행된다.

또 설명회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시는 유형이 확정되면 12~1월 중 공모를 실시해 2월에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관에 대한 지원은 3월부터 이뤄진다.

시는 지난 4월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을 공모해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167개 사업을 선정, 총 11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평가는 내년 2월 실시된다. 평가에서 부진한 단체로 분류되면 2018년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500세대에 전달한 온정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8일 2017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여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4000kg을 담갔다. 이번 행사에는 유광중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직원과 사회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 안전학교회원, 다문화 이주여성 등 140명이 참가했다. 담근 김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500세대에 전달됐다. 유광중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우리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콩트·토크쇼로

육아피로 날리기

市육아지원센터 콘서트

광주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9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육아콘서트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을 기념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기 개그우먼 정경미, 김경아(TWO MOM)가 출연해 부모들의 육아 고충을 웃음으로 위로했다. 또 육아 힐링 콩트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맘 토크쇼,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시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 모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거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과정 컨설팅,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대체교사 파견사업을 비롯해 가정 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말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이전해 직장맘을 위한 일·가정 양립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공동 흉남순 변호사 가족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제29호)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인 흉남순’ 기리는 표지석 제막 재야 인사 등 100여명 참석 기념식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된 광주시 동구 공동 고(故) 흉남순 변호사 가족 앞에서 지난 8일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됐다.

<광주일보 9월 11일자>

이날 제막식에는 흉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재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흉 변호사 가족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 등을 한 사람방 역할을 뿐 아니라 구

속자 석방 논의,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했던 곳이다.

광주시는 흉남순 변호사의 자택이 방치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가 나가자 지난 9월 10일 흉 변호사 자택을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2006년 타계한 흉 변호사는 1963년 공동 가족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80년 5월에는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 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회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전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